

# 나라꽃, 무궁화

김건호  
(천리포수목원)

## 1. 나라꽃 제정은 어떻게 할까요?

한 나라 한 민족이 그 나라 그 민족의 상징으로 삼고, 온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꽃이나 식물을 나라꽃(國花)이라고 한다. 나라꽃은 대개의 경우 그 나라의 고유 식물이나 보편화된 자생식물로 선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때로는 외래식물을 나라의 꽃으로 정하는 사례도 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나라꽃은 대부분 모든 면에서 아름답고 보기 좋은 꽃이나 식물들이 선정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보잘 것 없는 꽃이나 식물들이 나라꽃으로 제정되는 경우도 있고, 법률로 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나라꽃 제정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그 나라의 국민성을 상징할 만한 특성을 지니고 있거나,  
역사와 특수한 관계가 있거나,  
역사에 깊이 관련된 전설이 있는 꽃이나 식물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나라꽃은 무궁화로서 오랜 역사 속에 우리 민족과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어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라꽃이 된 대표적인 예다. 나라꽃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장미를 대영제국의 나라꽃으로 알고 있지만, 장미는 잉글랜드만을 대표하는 꽃일 뿐이다.

민족이나 부족이나 나라를 대표하는 꽃이 없는 나라들이 지구 위에는

많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많은 나라들이 탄생되면서 국가와 함께 나라꽃을 새로이 법률로 제정한 나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 2. 세계의 국화(國花)

스코틀랜드의 나라꽃은 *Cirsium vulgare*라는 엉겅퀴의 일종이다(영명 : Bull Thistle).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약초로 이용되고 있는 이 식물은 아주 보잘 것 없는 꽃을 가졌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접근 할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가시가 있다. 옛날 덴마크 해적단 바이킹족들이 유럽 일대를 휩쓸면서 약탈을 일삼던 시절 밤중에 스코틀랜드를 침입했다가 날카로운 엉겅퀴의 가시에 온몸을 찔려 큰소리로 비명을 지르자 그 소리를 들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포악한 바이킹족들의 침입을 알아차리고 모두 멀리 피신하여 큰 화를 면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다.

이때부터 생명을 구해준 은혜의 식물로 인정되었고 따라서 엉겅퀴를 나라꽃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주 보잘 것 없는 약초에 지나지 않겠지만 이 나라에 있어서는 역사적 유례를 가진 나라꽃이라 하겠다.

미국은 일부 주(州)의 꽃은 있으나 합중국을 대표하는 나라꽃은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았다.

## 3. 무궁화가 나라꽃이 된 유래

우리의 나라꽃인 무궁화는 법률이나 제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겨레의 꽃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일찍이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무궁화가 많은 곳이란 뜻으로 근역(權域) 또는 근화향(權花鄉)이라 불렀다. 또 지금까지 전하는 동양 최고의 지리서인 산해경(山海經)에 ‘군자국 유 훈화초 조생모사(君子國有薰華草 朝生暮死)’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때의 ‘훈화초(薰華草)’는 바로 무궁화를 일컫는 것으로 ‘군자국(우리나라)에는 무궁화가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라는 뜻이다. 이밖에도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峰類設)에도 고금주(古今注)에서 인용한 ‘군자지국 지방천리 다목근화(君子之國 地方千里 多木槿花)’라는 대목이 있고, 동경잡기(東京雜記), 해동역사(海東釋史) 등 많은 문헌에서 우리나라를 무궁화의 나라로 일컫고 있다. 특히 고려 예종 때는 고려를 스스로 ‘근화향(槿花鄉)’이라 칭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하여 보면 예로부터 중국인들은 ‘군자의 나라는 사람들의 민족성이 군자답고 무궁화가 아름답게 피는 나라’라고 예찬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무궁화로 상징하여 ‘무궁화 피는 화려강산’으로 인식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역사도 국어도 국기도 없고 애국가를 부를 수조차 없었던 일제하에서 그 어느 나라의 국화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무자비한 학대를 받으면서도 우리의 무궁화는 민족혼을 일깨우는 겨레의 꽃으로 온 겨레의 가슴에 면면히 자리하여 왔다. 독립문 건축 기념행사 때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다. 우리의 조국이 광복된 후에는 입법, 사법, 행정 3부(3府)의 표상으로 무궁화가 사용되었고, 국기의 봉도 무궁화 꽃 형태로 제정함으로써 명실 공히 무궁화는 나라꽃, 겨레 꽃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 4. 무궁화 활용

가. 역사 속에 나타난 무궁화

- 산해경에 나오는 무궁화(고조선)
- 봉배귀사도에 나오는 무궁화 꽃 모양의 머리장식
- 일제 강점기에 남궁억 선생은 무궁화 자수지도를 도안
- 다섯사랑 운동회가 제작한 국혼 응비도
- 독립선언문 원본에 있는 무궁화
- 대한제국시절의 임명장

나. 우리 생활 속의 무궁화

- 다른 국가상징에 활용

- 국기봉,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기타 시설물,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 나라문장
-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관저, 집무실, 항공기, 기차, 자동차 등
- 국가 기관의 기(旗)에 활용
  - 국회기, 법원기, 정부기, 각 부처기(旗) 등
- 훈장·상장 등에 활용
- 배지·모표 등에 활용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장·차관 등의 배지
  - 군인과 경찰의 계급장 및 모자챙, 모표 등
- 국경일 행사 등에 활용
  - 무궁화 화분, 경축 현판 도안, 무궁화 리본
- 생활, 조경, 태평농법 등에 활용
  - 비누, 꽃누르미, 조경, 벼농사 등

## 5. 세계인이 좋아하는 무궁화

전문가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계속 여러 색깔과 모양의 꽃을 피울 뿐만 아니라 분재, 울타리, 가로수 등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무궁화야말로 글로벌 지식기반 시대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잘 맞는 좋은 꽃이라고 권장하고 있다. 다른 꽃들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좋아하는 모양과 색깔의 꽃을 고를 수 있고, 용도도 다양한 무궁화야말로 장점이 아주 많은 것이다. 세계 지식인들이 그렇게 무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 6. 무궁화 명칭

가. 학명 : *Hibiscus syriacus* L.

학명에는 이집트의 Hibis 여신을 닮은 아름다운 꽃이란 의미가 담겨 있음

※ Hibis는 이집트의 여신 이름이며, cus는 닮았다는 뜻임

나. 영명 : Rose of Sharon, Shrub Althea(신에게 바치고 싶은 아름다운 꽃)

무궁화 이름에는 신의 축복을 받은 땅에서 장미꽃처럼 아름답게 핀 꽃이라는 의미가 있음

※ 샤론(sharon)은 성경에 나오는 성스러운 땅

다. 한자 : 無窮花(木槿花, 天指花) 영원히 피고 지지 않는 꽃

※ 세종 25년 훈민정음을 창제하며 무궁화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불려짐

## 7. 무궁화 유사종(친척)은?

무궁화속은 세계적으로 약 200여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무궁화와 부용, 황근, 닥풀, 하와이무궁화 등이 자생 또는 재배되고 있다.

① 무 궁 화 : *Hibiscus syriacus* L. 중국, 한국, 온대성 관상수

② 부 용 : *Hibiscus mutabilis* L. 중국, 다년생 초본, 관상수

노산부용: *Hibiscus para-mutabilis* 중국, 온대성 관상수, 냉해 약함

③ 황 근 : *Hibiscus hamabo* S. et Z. 제주도, 남해 도서지방 자생

④ 닥 풀 : *Hibiscus manihot* L. 중국, 일년생 초본, 한지원료로 재배함

⑤ 하와이무궁화: *Hibiscus rosa-sinensis* L. 중국, 인도, 화분, 온실재배

이들을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수술의 위치가 어디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가가 기준이 되는데, 무궁화는 수술통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고, 부용은 수술통 하단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하와이무궁화는 암술머리 가까이에 집중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



무궁화



부용  
수술의 위치



하와이무궁화

## 8. 무궁화 특성

무궁화의 원산지는 우리나라 서해안 지방과 중국 랴오둥 반도이며, 유사종에 비하여 꽃이 아름답고 추위에 강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산과 평양을 잇는 북위 40°이남 지역의 해발 500m 이하 지역에 생육 가능하다.

무궁화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나무 높이 3~4m 정도까지 자라는 키 작은 낙엽수종이다.
- 꽃은 7~10월 사이(약 100일)에 계속해서 피고 진다.
- 한 송이 꽃은 새벽에 피어 저녁에 시들지만 매일 새로운 꽃이 핀다.
- 꽃은 색깔과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아름답고 화려하다.
- 내한성이 비교적 강하고, 양수에 속하나 내음력도 강하다.
- 이식성과 맹아력이 강하고, 생장이 빠르며 내염성(耐鹽性) 및 내공해성(耐公害性)도 강하다.

## 9. 무궁화 분류

무궁화속 식물 분류는 원산지, 개화분포, 화색(花色) 및 화형별로 구분된다.

### 가. 원산지별 분류

무궁화속 식물은 전 세계 7개 지역의 원산지(동아군, 하와이군, 북미군, 중남미군, 남아군, 인도군, 아프리카군)로 나눈다.

이들 중 우리나라에서 관상용으로 흔히 재배되는 것은 동아군, 하와이군과 북미군의 3군이다. 동아군은 우리나라 등 동북아시아 원산으로 목본성이며 강한 내한성을 지닌 군으로 무궁화와 부용 외에 *H. parmutabilis*, *H. sino-syriacus*, *H. indicus*, *H. yunnanensis*, *H. taiwanensis* 등이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상호 교배가 가능하다. 하와이군에는 화려한 원색 꽃을 지닌 목본성이나 약한 내한성을 지닌 하와이무궁화

(*H. rosa-sinensis*)가 있고, 북미군에는 가장 꽃이 큰 목본성의 미국부용(*H. moscheutos*)이 있다.

#### 나. 개화 분포별 분류

무궁화 한그루에서 매일 20~30여송이의 꽃이 100여일 계속 개화가 이루어지는데 계절별, 품종별로 가장 많이 개화되는 시기에 의한 분류이다. 이 분류방법에는 다시 개화량과 개화시기에 의한 분류로 구분되며, 개화량에 의한 분류는 다화성, 중화성, 소화성으로 나누어지고, 개화시기에 의한 분류는 조생, 중생, 만생종으로 나눈다.

#### 다. 화형별 분류

꽃의 형태에 의한 구분으로 무궁화 꽃의 기본형은 꽃잎이 5매, 꽃받침이 5개, 암술머리(주두)가 5개이고 꽃받침과 꽃잎의 안쪽 끝은 모두 붙어 있으며, 꽃받침 밑에는 부꽃받침이 7~8개가 꽃받침을 다시 받들고 있다. 수술은 원통모양의 수술통에 모두 합쳐져 짧게 부착되어 있으며, 이 수술통은 암술대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지니는 것인데, 이 기본형을 기준으로 암수술이 꽃잎으로 변한 모양에 따라 크게 홑꽃과 겹꽃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겹꽃은 다시 그 정도에 따라 반겹꽃과 겹꽃으로 나눈다.

#### 라. 화색별 분류

꽃의 색깔에 의해 백색계, 홍색계(적색계, 자주색계), 청색계로의 구분과 더불어 단심유무에 의해서, 화관 선단부에 바람개비 형태로의 화색발현의 유무에 의해 분류된다. 즉 무궁화의 꽃색은 기본적인 순백, 적-자색, 청색과 복색체로 분류가 가능하여 각각에 속하는 품종명이나 계통명에 따라 배달계(순백색), 백단심계, 홍단심계, 청단심계, 아사달계로 분류된다. 이 화색별 방법이 현재 무궁화 품종구분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 배달계 : 꽃잎 중심부에 단심이 없는 순백색 꽃(배달, 옥녀, 눈피, 백조, 소월, 사임당 등)



백달



옥녀



눈뿔

- 단심계 : 꽃잎(白色, 紅色, 靑色) 중심부에 단심이 있는 꽃
- 백단심계-안동, 우정, 심산, 일편단심, 선덕, 원화, 백단심, 신태양, 한마음, 단심, 새빛, 한빛, 한얼단심, 월산 등
  - 홍단심계-한사랑, 홍화랑, 화홍, 향단, 무지개, 계월향, 개량단심, 난파, 고주몽, 서호향, 칠보, 새아침, 영광, 홍단심, 불새, 새영광, 고요로, 광명, 한얼, 님보라, 불꽃, 서광, 수줍어, 에밀레, 원슬랑, 준향, 향단심, 충무 등
  - 청단심계-대자매, 파랑새, 자매, 자옥 등



안동(백단심계)



한사랑(홍단심계)



대자매(청단심계)

- 아사달계 : 단심이 있으며 꽃잎에 무늬가 있는 꽃(아사달, 칠보아사달 등)



아사달



칠보아사달